

### ③ 建設景氣 沈滯속 浮揚策 여부가 關鍵

田 大 洲

〈全國經濟人聯合會 調查擔當理事〉

#### 問題의 提起

그동안 우리나라 建設은 中東進出에 따라 外貨獲得源으로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여 왔으며 國內에 있어서도 高速道路, 댐, 港灣擴張, 發電所 建設 등에서 많은 役割을 擔當해 왔다. 또 이같은 活潑한 國內外 建設工사로 인하여 建設의 關聯産業인 시멘트, 合板, 鐵筋 등의 關聯産業의 發展과 雇傭擴大에도 많은 寄與를 해왔다.

그러나 最近의 建設景氣의 양상은 크게 不振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선 海外建設景氣는 85年 들어 1~9월까지 歸國建設勤勞者數가 4萬名에 이르고 있으며 單價의 下落으로 採算性도 크게 惡化되고 있다. 또한 現地政府의 國內業者保護, 中共 등 後發開途國의 進出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發注物量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工事を 했더라도 그 代金決裁의 지연으로 우리 建設業體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反面 國內 建設業에 있어서 政府工事は 88올림픽 등 國際行事を 앞두고 꾸준히 增加되는 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나 住宅建設을 비롯한 民間建設部門이 投機抑制施策으로 인한 需要의 事實上 억제, 商業用 빌딩 不況 등으로 심한 沈滯의 늪에 빠져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이 海外建設의 不振에 國內 民間部門 不況이 겹침으로써 政府工事 物量을 둘러싼 競爭이 熾烈해져

適正利潤의 確保마저 어려워진 立場이다.

따라서 經濟의 減速成長으로 인한 鑛工業部門의 雇傭 需要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反面 中東人力, 農村人口의 都市流入, 半失業就業者의 增加 등을 고려할 때 雇傭擴大 次元에서 建設景氣의 活性化가 要請되고 있으며 특히 住宅의 各種 規制완화 여부가 86年의 建設景氣의 向方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 雇傭擴大을 위해서는 不況期의 財政의 役割이 중요한 바의 擴大가 바람직하다는 點에서 보다 積極的인 公共投資政策이 必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 86年 建設景氣環境

우선 86年의 建設景氣는 綜合的으로 볼 때 그 展望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라고 하겠다. 우선 關心의 焦點이 되는 海外建設景氣의 環境을 본다면 그동안 우리 經濟의 「달러박스」였던 中東景氣가 繼續的으로 沈滯될 可能性이 크다는 點이다. 그 理由는 國際 原油價格이 계속적으로 下落될 것이라는 點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中東景氣는 事實上에 있어서 先進國의 國際 石油資本과 產油國 政府가 암암리에 이루어 놓은 合作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土台로 하여 產油國 財政의 70~80%가 原油收入에 의해서 지탱된 것이며 여기에 우리 建設業體들이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86 年の 油價展望은 産油國 立場에서 그렇게 밝은 편이 되지 못한다. 現在 國際豫測 機關들의 油價 예측에 의하면 배럴당 26 弗 또는 悲觀的으로는 23 弗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더지않아 15 弗台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側도 있다. 現物市場에서는 뒷去來로 20 弗까지도 可能하다는 說이 있으며 實質的으로는 石油 輸出國機構(OPEC)의 카르텔形成에 限界를 나타내고 있고 石炭, 原子力代替 등으로 世界消費가 減少되고 있기 때문에 20 弗線이 事實上 需給 均衡點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一部 石油 專門家들은 産油國들의 對外 負債와 海底石油開 發 投資에 따른 元本回收 등을 위한 價格유지 노력으로 당분간 큰 幅의 下落이 어려울 것으로 展望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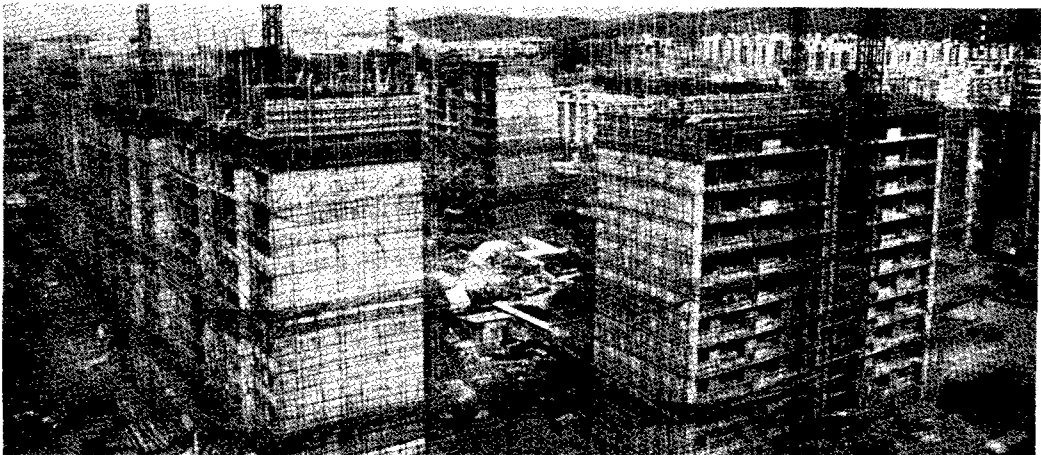
여하간 기름값은 떨어지는 趨勢에 있으며 이는 結果的으로 産油國의 財政收入 減少로 나타나고 이것은 用役進出의 減少와 直結된다고 보아서 틀림없다. 또한 先進大型建設業體 역시 技術을 武器로 競爭隊列에 뛰어 들고 있으며 道路, 港灣 등의 工事發注에서 보다 技術集約的인 플랜트 등으로 그 內容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勞動集約的인 中東建設市場은 그 舞台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中東 以外の 其他 地域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進出國 政府의 借款供與에 의한 工事가 一般的이기 때문에 政府借款의 供與가 어려운 우리나라 立場에서는 主契約者로 工事を 發注받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東南亞 建設市場의 경우 1次産品 輸出國들은 1次産品 價格의 계속적인 下落으로 餘力이 별로 없으며 모두 外貨不足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建設市場이 活潑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다음으로 國內 建設市場의 展望을 알아보자. 國內 經濟動向을 살펴 보면 우선 85 年の GNP 成長率은 4.7% 정도에 그칠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86 年の 경우도 5.8~6.2%線에 머물 것으로 豫測된다. 또한 國際收支는 85 年に 8.5 億弗 정도 的 赤字에서 86 年에는 이보다 약간 擴大될 可能性이 없지 않다. 物價의 경우는 GNP 換價基準 5%를 넘어설 것이며 失業率은 4.5%線 内外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리고 固定投資는 住宅投資가 活性化될 것이라는 前提위에 85 年보다 약간 늘어날 것이나 企業의 施設投資는 몇몇 大型投資를 빼고 나면 그 增加率이 鈍化될 것으로 보인다. 輸出企業의 投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販賣展望(輸出展望)은 主宗品目的 경우 6~7%, 全體的으로는 9% 内外 增加될 것으로 보아 326 億弗정도 線이 될 것으로 豫상된다.

이렇게 볼 때 추세대로 둔다면 86 年の 國內 建設景氣 역시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대로 失業率이 現在보다 上昇하고 新規就業希望者가 계속 늘어난다는 點을 감안할 때 雇傭擴大라는 次元에서 建設産業에 대한 評價가 새롭게 내려질 可能性이 크



年度別 海外建設 受注実績

區分	中東地域(A)	其他地域	計(B)	A/B(%)
1980	7,831,040	428,334	8,259,374	94.8
1981	12,674,238	1,006,776	13,681,004	92.6
1982	11,391,849	1,991,597	13,383,446	85.1
1983	9,023,287	1,420,644	10,443,931	86.4
1984	5,910,514	591,852	6,502,336	90.9
1985 10月末 현재	3,731,000	294,000	4,025,000	92.7

資料:建設部.

며 벌써부터 政府當局에서 雇傭擴大問題를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前後事情을 볼 때 制限의이나나 建設에 보다 많은 投資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內外的으로 不確實 要因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可能性이 있는나에는 아직까지 確實한 答辯이 어렵다고 하겠다.

### 當面하고 있는 諸問題

一般的으로 大型建設業體일수록 海外市場 依存度가 높은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建設業界의 特徵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中東建設市場이 不透明하기 때문에 大型建設業體들도 國內 工事に 보다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業界에 있어서 熾烈한 競争을 意味하기도 한다.

우선 海外建設工事 動向을 살펴 보면 總受注額은 85年 10月 現在 40億弗이며 年末까지 50億弗 前後가 될 것으로 보여 前年の 65億弗보다 23% 가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 受注額가운데 中東의 比重이 92.7%로 심한 中東 偏重現象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나라 海外建設의 취약한 斷面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中東의 財政收入 減少가 곧바로 우리 海外建設 沈滯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受注의 減少와 더불어 外貨稼得額도 줄어들어 84年 17億弗에서 85년에는 15億弗 정도, 86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中東建設景氣가 이렇게 沈滯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工事의 採算性이 問題되자 中東就業 建設勞動者의 歸國人員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指定業體 民間住宅建設実績

地域別	84年 1~12月	84,9月末 現在	85,9月末 現在	前年同期 比增減率
計	19,604	16,607	12,263	△26.2
서울	3,965	2,567	3,980	55.0
부산	2,692	2,692	1,134	△57.9
대구	648	648	1,142	△76.2
인천	4,896	4,888	3,864	△21.0
안양	3,237	2,811	673	△76.1
대전	510	510	312	△38.9
기타	3,656	2,491	1,158	△53.6

資料:韓國住宅事業協會.

國內 建設業體 또한 減量經營으로 새로운 일자리 提供이 어렵게 돼 이들의 失業事態가 새로운 社會的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企業으로서는 보다 勞賃이 싼 第3國 勤勞者採用을 피하고 있는 事例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中東에서 使用하던 建設重裝備 증상당량이 現在 遊休狀態에 있으며 이 역시 企業에 損失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受注하는 建設工事が 大部分 土木·建築分野 中心이며 小規模工事が 많다는 點이 問題로 꼽힌다. 1966~83年中 1千萬弗 未滿의 工事件數가 總 2,300餘件의 工事中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1億弗 以上 規模의 工事は 9%에 불과한 실정이다. 工事性質로는 土木이 39.8%, 建築이 46.5%로 全工事中 86.3%가 이 兩部門에 置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中東地域의 工事內容은 土木·建設에서 점차 플랜트, 電氣·通信工사로 變質되고 있는데 따라 競争에 限界를 느끼고 있으며 結果적으로 受注競争에서 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國內建設을 살펴 보면 우선 住宅分野는 減速成長에 따른 所得增加의 鈍化와 投機抑制로 인하여 住宅需要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9月末 現在 民間주택의 建設實績은 前年對比 26.2%가 減少한 1만2천세대이며 이중 상당부분이 未分讓狀態에 있어 住宅建設企業에 상당히 큰 資金負擔을 안겨주고 있다. 公共住宅 역시 需要不振으로 一部住宅은 賃貸方式으로 推進되고 있

發注機關別 受注實績

(單位: 億圓, %)

	合 計		公 共 部 門		民 間 部 門	
	金 額	增減率 <sup>1)</sup>	金 額	增減率 <sup>1)</sup>	金 額	增減率 <sup>1)</sup>
1981	41,193	38.6	26,981	57.1	14,212	13.3
1982	51,728	25.6	30,322	12.4	21,406	50.6
1983	56,434	9.1	30,394	0.2	26,040	21.6
1984	65,190	15.5	36,062	18.6	29,128	11.9
1985 (E)	70,199	7.7	-	-	-	-
1/4 分期	13,879	31.1	8,439	68.2	5,440	△ 2.3
2/4 分期	17,508	0.3	11,138	26.0	6,370	△ 26.1
3/4 分期	14,752	3.6	9,302	28.5	5,450	△ 22.2
4/4 (E) 分期	24,060	5.0	-	-	-	-

註: 1) 前年對比(前年分期對比) 增減率.  
資料: 大韓建設協會.

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분양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都市에서는 傳貫값이 크게 오르는 寄現象을 보이고 있어 注目되고 있다.

이처럼 住宅需要가 不振한 理由는 購入制限(1家口 1住宅) 및 그동안의 投機抑制策에 기인한다. 물론 政府當局에서는 下半期에 住宅景氣의 活性化를 위해 建費을 조정, 住宅資金의 配定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需要쪽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다음으로 商業用 建築에 있어서는 都市再開發事業과 더불어 비교적 活潑하였으나 賃賃價格의 下落 등으로 앞으로 주춤할 것이며 工場建設에 있어서도 光陽만의 第2製鐵을 除外하면 두드러진 物量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公共部門을 살펴 보면 民間部門에 비하여 크게 活氣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今年 3/4 分期까지의 受注를 놓고 보더라도 民間部門은 계속 減退하고 있는 反面에 公共部門은 계속 增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展望과 課題

이상에서 볼 때 86년의 建設景氣는 한마디로 政府의 政策 여하에 따라 左右되는 그러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海外建設이나 現在의 民間建設分野 역시 어떠한 새로운 조

치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好轉될 可能性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의 雇傭問題 등을 생각할 때 政府當局에서 失業吸收 對策을 취한다고 假定한다면 住宅部門 등의 活性化 可能性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現政府가 投機 근절策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浮揚조치가 어느 線까지 擴大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關鍵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86年 중 30 萬世대의 住宅供給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86年의 主要公共事業으로는 釜山港 3段階建設, 仁川市 下水道 등 일부 지역工事와 現在 進行중인 中部高速道路 및 서해안 간척事業 등의 대형공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點에서 雇傭擴大를 위한 보다 많은 公共投資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은 財政의 景氣調節機能이 크지 못했으며 그 機能의 代表的인 形態가 公共事業이라는 點에서 이에 대한 積極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成長이 우선 目標일 경우 赤字財政을 통해서라도 이룩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리고 企業의 投資活性化를 통해서 建設工事가 많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大型 減稅政策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 民間資本의 公共部門 參與가 여러 가지로 봉쇄되어 있으나 財政의 限界를 감안, 이에 대한 積極적인 檢討도 必要하다고 본다. ♣